

융합 교육을 위한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 구조모형

송미순¹, 조혜경^{2*}

¹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²초당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Self-Regulated Learning among Nursing Students for Convergence Education

MiSoon Song¹, Hyekyung Cho^{2*}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구조 방정식 모형을 만들고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들에게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273부의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적합지수는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6개 경로 중 5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분산의 68%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기결정동기, 대인관계유능, 성취목표지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의 자율성과 관계성을 증진시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자기조절학습, 자율성지지, 자기결정동기, 대인관계유능, 성취목표지향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nstruct and te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related factors that affect to self-regula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The nursing students was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and 273 data units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hypothetical model fit indices for the model revealed a fit at a recommended level, and 5 of the 6 path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ining 68% of the variance. Therefore, education that improves self-determina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will promote self-regula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Competence programs to build the self-autonomy and relationships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Self-regulated learning, Autonomy support,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습자들의 지능, 동기과 선행지식이 연구되었지만, 이러한 요

인들이 학업성취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1]. 자기조절학습은 타인에 의해 지시된 학습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필요성을 자각하고 학습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자기활동과정이다[2]. 스스로에 의한 조절과 통제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funding for academic activities of chod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Hyekyung Cho(hkcho43@hanmail.net)

Received October 17,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Revised November 8,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로 이루어지는 자기조절학습은 이론과 실습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 간호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며, 다양한 정보를 선택·통합·응용·적용할 수 있는 학습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3].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의료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장 실습 교육이 다차원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장실습교육은 학생을 당황하고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임상의 역동적인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학습하고 간호 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자기조절학습을 자극하고 실천하게 한다[4]. 자기조절학습을 통한 학업성취는 개인의 책임의식과 우월감을 향상시키며, 간호대학생에게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비전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하게 한다[5,6].

사회인지적 관점에서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부모, 교수자, 동료 등과 같은 주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7], 교수자의 지지는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는 행위로써 학습 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하며, 학습자의 유능성과 책임감을 향상시켜 학습능력과 학습동기가 높아진다고 본다[8-10]. 교수자의 긍정적 지지는 외적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인 사고와 언행을 조절하여, 학습자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한다[11]. 초기 성인기로 부모와의 정서적 독립을 완성한 대학생 시기는 교수자의 지지적 관계를 통하여 의사소통과 신뢰감 및 친밀감을 형성하는 관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는 초중고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에 직접 또는 매개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호대학생에서도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12-14].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사회적 유능성, 관계적 유능성, 사회적 기술이라고도 하며[15], 자신과 타인의 내적 동기, 상태, 행동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행동하여 갈등의 상황에서 조절과 타협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15].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 향상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환자와 가족 및 관련 조직원들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한다. 간호사의 이러한 관계망에서 대인관계는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유능한 대인관계는 효과성과 적절성이 균형을 이룬다[16]. 효과성은 통제력의 획득과 목표 달성 및 과업 성취이며, 적절성은 사회적 규범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유

능성이 높은 대학생은 갈등의 상황에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통제력을 보이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선택을 하며[17], 학습에서도 효과적인 자기조절과 최선의 선택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내었다[18].

성숙한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동기와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기와 자율성은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구성요소로써, 동기는 외적 요인들의 개입이 있더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자기결정성을 가질 수 있으며 대립과 상호작용을 함께 유지한다[8].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조절이 자신에 의한 것인지, 외부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자기결정성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율성이 증가하고 내재적 동기가 높아져, 확인된 조절과 내재적 조절이 외재적 조절보다 높아진다고 한다[19,20]. 내재적 조절 동기는 완전한 내적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장 자율적이고 자기결정성이 높은 동기유형이며, 확인된 조절 동기는 개인적 중요성, 의식적인 가치부여 등 외재적 동기에 약간의 내적인 원인이 포함된 동기 유형으로[20] 이러한 학습동기를 강화시킴으로써 미래의 성공적인 학습자가 되어 유능한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성취목표가 결정되어 있지만, 전문직 간호사로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자율적 동기와 환경적 지지로 형성된 자기조절학습 태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 되기’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이론 지식과 임상 실습을 병행하고 있어 수업 내용이나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성취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나 학습상황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동기와 선택과 신념의 통합체로 작용하여 학습과 생활 전반에 자주적 행동과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간호사 국가자격증 취득이라는 기대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6,21,22]. 즉 간호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은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의지이며 미래목표결과를 만들기 위한 계획과 실천체계로써 개인의 성취를 위한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23]. 개인의 성취동기는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나[24],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에 중점을 두는 숙달목표와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수행목표가 자기조절학습능력 향상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으로 자기결정성동기, 성취목표지향, 대인관계유능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교수자의 지지가 구조적 관계 속에서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을 설명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가설 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구조모형연구이다. 전라남도 C대학교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편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에 한하여 285부의 설문을 실시하였고, 대상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설문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선물이 지급되었다. 그 중 설문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273부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절한 표본크기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제시를 하고 있지만, 200여 개의 표본크기를 임계치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표본크기를 충족하였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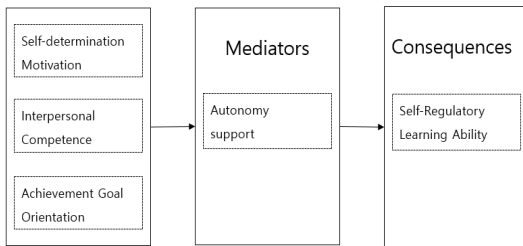


Fig. 1.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study

2.2 측정도구와 자료분석

SRL의 요인구조는 Fig 1과 같이 문헌고찰에 근거하여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이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Supporting autonomy of instructor)라는 매개변수를 거쳐 자기조절학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s, 구조방정식은 AMOS version 24.0 for SPSS로 처리하였다. 가설모형은 5개의 잠재변수(latent variables)로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유능, 성

취목표지향,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자기조절학습으로 구성하였다. 모델 적합도(model fit)로 Normed chi-square (CMIN/DF),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Comparative Fit Index (CFI), Goodness of Fit Index (GF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 (SRMR)을 이용하였다 [26].

2.2.1 Perceived Autonomy Support

Williams와 Deci(1996)가 개발한 학습풍토 질문지(The 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 LCQ) 중 지각된 자율성지지 척도(Perceived Autonomy Support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여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자의 자율성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2.2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Ryan과 Connell(1989)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조절설문지(Self-Regulation Questionnaire-Academic, SRQ-A)는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른 학습동기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확인된 조절과 내재적 조절 동기를 각 6문항씩 총 12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결정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2.2.3 Interpersonal Competence

Buhrmeser 등[27]가 개발한 대인관계유능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한국 대학생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의 5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5$ 이었다.

2.2.4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Elliot & Church(1997)의 Achievement Items을 상황에 맞게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숙달목표 6문항, 수행접근목표 6문항, 수행회피목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목표지향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숙달목표 .80, 수행접근목표 .75, 수행 회피목표 .81이었다.

2.2.5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Jung(2005)의 '자기조절학습'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5이었다.

3. 결과

3.1 General characteristics

성별은 여학생 222명(74.7%), 종교가 없는 학생 194명(65.3%),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 135명(45.5%), 교우 관계가 친밀한 학생 196명(66%),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 122명(41.1%), 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학생 148명(49.9%), 교수관계에 만족하는 학생 163명(54.8%), 보통수준 이하의 경제수준인 학생 273명(82%)이었다.

3.2 Correlations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든 측정변수의 일변량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모든 일변량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3 미만, 10 미만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자료는 다변량정규성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9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는 목표와 자기조절학습 $r=.63$ 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3 Structural equation model

본 연구는 가설모형의 적합도와 간명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논리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고정지수(CR)와 수정지수(Modification Incides)를 이용하여 수정하였다. 가설적 모형에서 고정지수 값이 유의하지 않은 2개의 경로(대인관계 유능성→자율적지지, 자율적지지→자기조절학습능력)를 확인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자율적지지 경로를 자유화하였고, 대인관계 유능성→자기조절학습 경로를 추가하여 수정모형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수정모형에 대한 모델 적합도의 카이제곱 통계량의 p 값이 0.05보다 작아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카이제곱은 표본의 크기나 모델의 복잡성에 영향을 받기도 하며, 최대우도법을 사용했을 경우, 비정상적으로 큰 값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카이제곱 통계량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25]. 본 연구의 절대, 증분, 간명 적합지수, Normed $\chi^2=2.75$, RMSEA=0.08, CFI=0.93, GFI=0.94, SRMR=0.05를 확인하여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수용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수용 가능한 모델로 평가하였다.

가설모형의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2)은 교수자의 자율성지지는 24%, 자기조절학습은 68% 설명되었다.

가설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자기결정동기($t=4.54$), 성취목표지향($t=7.80$), 관계유능($t=2.33$)이 자기조절학습을 설명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를 설명하는 경로는 자기결정동기($t=4.95$), 성취목표지향($t=3.84$)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설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경로는 자기조절학습을 설명하는 교수자의 자율성지지($t=0.27$)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Fig. 2 이상의 결과에 대한 가설모형의 경로는 Fig. 2와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각 경로의 총효과와 직·간접효과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는 자기

Table 1. Model fitness Index for the hypothetical Model

(N=273)

	$\chi^2(df)$	χ^2/df	p	GFI	SRMR	NFI	CFI	RMSEA
Goodness evaluation criteria		≤3	>.05	≥0.90	≤0.05	≥0.90	≥0.90	≤0.08
Modified model	96.07	2.75	<.001	0.94	0.05	0.90	0.93	0.08

GFI=Goodness of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N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PNF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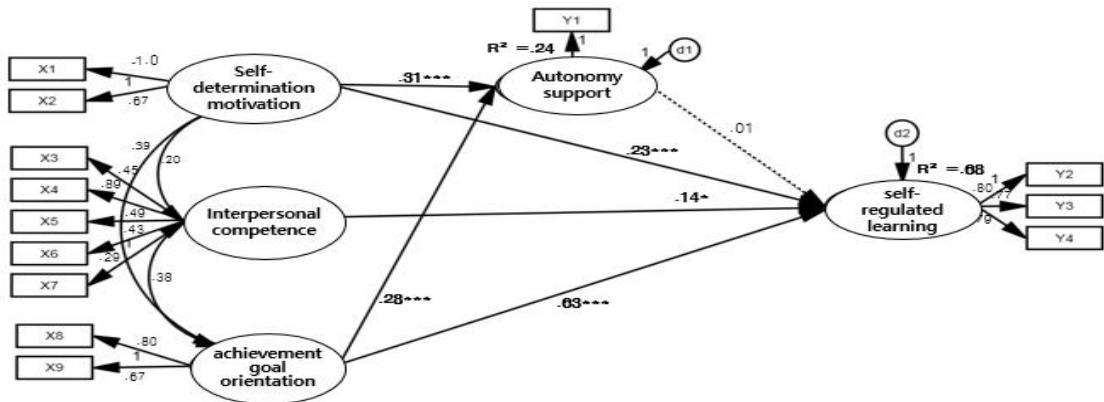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p<.05, **p<.01, ***p<.001). X1: Identified regulation, X2: Intrinsic regulation, X3: Assertion, X4: Consideration, X5: Conflict, X6: Initiation, X7: Opening, X8: mastery goal orientation, X9: Performance-approach, Y1: Perceived Autonomy Support, Y2: Motivational Regulation, Y3: Cognitive Regulation, Y4: Behavioral Regulation

Table 2. Regression weights for the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Modified model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SRW(SE)	t(p)	SMC			
Perceived Autonomy Support			.24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31(.08)	4.95(<.001)		.31(.006)	0	.31(.006)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27(.06)	3.84(<.001)		.28(.009)	0	.28(.009)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68			
Perceived Autonomy Support	.01(.43)	0.27(.629)		.01(.834)	0	.01(.834)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23(.58)	4.54(<.001)		.24(.007)	.004(.777)	.24(.006)
Interpersonal Competence	.14(2.72)	2.33(<.05)		.14(.014)	0	.14(.014)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64(.61)	7.80(<.001)		.64(.015)	.004(.853)	.64(.015)

*SRW=standardized regression; SE=Standardize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조절학습에 직·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수자의 자율성지지가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다른 결과였다. 이는 발달적 측면에서 동기적 요인의 역할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과제 경험 및 전문 기술 습득이 자주성을 증가시켜준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6].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주는 자기결정동기, 대인관계유능, 성취목표지향 및 교수자의 자율성지지의 경로를 설명하고 이를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향상 커리큘럼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자기조절학습은 자기결정동기, 대인관계유능, 성취목표지향에 의해 68%의 변량이 설명되었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성취와 관련이 높은 요인으로 의학기술의 빠른 변화 속에서 최신의 정보를 학습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에게는 중요한 학습능력이다[28]. 즉 학습자가 성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지·동기·행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다[7]. 자기조절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학생은 성취목표를 계획-진단-평가하고 피드백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며,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을 포함한 여러 환경을 잘 조절하여 유연하게 대처한다[29]. 이러한 자기조절학습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려는 자율적 동기

가 지각되어야 한다.

자기결정동기는 학습자의 흥미와 가치를 지각하게 하여 자율적 동기를 구현하고 학습에 대한 지속성과 긍정적인 정서를 유도하는 내적 조절요인이다. 개인의 행동조절에는 자신이 지각하여 결정하는 다양한 동기유형이 존재하며, 학습자들은 스스로가 지각한 동기유형에 의해 행동이 촉진되고 강화된다고 한다[30]. 즉 간호대학생들은 이론 수업 후 실습을 통한 적용의 과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학습에 대한 필요를 스스로 지각하고, 결정하여 자기조절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결정동기가 자기조절학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31-35].

이러한 자기조절의 발달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순차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대인관계가完滿한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만족과 인정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생겨 팀 기반 수업에 능동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개인의 발달과 성장의 근원에는 대인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대인관계는 사회적 지지 자원이기도 하다[36]. 대인관계 기능이 저하된 경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지적 정서 조절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37]. 대학생의 대인관계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 새롭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경험으로 성숙한 인간관계를 발달시킨다. 특히 미래의 간호사로서 종사하게 될 간호대학생에서 대인관계 능력은 습득하여야 할 생활기술이다. 간호는 특성상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들과 일정 기간 접촉해야 하며, 조직 내의 구성원들과도 업무를 위한 소통을 해야 하므로 대인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이전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유능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부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유능과 자기조절학습의 상관을 보고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35,38]. 간호대학생에게 대인관계유능은 자신과 타인의 내적 동기, 상태, 행동 등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으로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할 때 요구되는 기술이다[15]. 일상생활과 교과학습 및 취업환경에서도 대인관계기술이 필요함을 경험한다. 따라서 간호교육과정에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취목표지향은 자기조절학습에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가장 높은 영향변수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21,39,40]. 성취목표지향은 자신의 상

황이나 욕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정의적 또는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취목표 지향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자기조절학습을 촉진시켜 학습성과를 향상시킨다[21]. 성취목표지향은 목표에 대한 동기나 신념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동기이론 관점에서 살펴보면 내재적 동기는 숙달목표와 관련되며 외재적 동기는 수행목표와 관련된다. 숙달목표가 학습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수행목표는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려는 것이다[23].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경우 타과보다 많은 학점 취득과 실습 및 그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성취평가는 상대평가로 순위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국가고시와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학습환경은 성취목표지향을 높이고 자기조절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과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22]. 그러므로 대학과 교수자는 학생들의 긍정적 동기요인을 파악하고, 학습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에 자아, 환경, 학습 등의 영역이 통합된 자기조절 프로세스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자기조절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인 부모, 교사, 동료 등에 중점을 둔다[7]. 즉 자기조절학습은 자기 스스로 조절능력을 습득하기도 하지만, 타인과 함께 자신의 학습을 조절하는 능력을 학습하기도 한다[4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교수자의 지지가 학생들의 자기결정동기, 성취목표지향 등의 내적 자원을 기반으로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였지만,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42,43]. 선행연구에서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학습 초기나 새로운 분야의 학습시에 교수자의 자율성지지는 자기조절학습에 정적영향을 주었으나, 교수자의 자율성지지를 통제적으로 지각한 학생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8,12-14,44,45]. 즉, 자기조절학습의 발달적 측면에서 동기적 요인의 역할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과제 경험 및 전문기술 습득이 자주성을 증가시켜준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6]. 본 연구 참여하였던 간호대학 3학년과 4학년은 학교수업과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학생들로 팀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실습교육을 통하여 공동조절과 자기조절의 발달을 촉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습과정은 자기조절학습에서 타인인 교수자에 의한 지지 역할보다는 자기조절에 의한 행동 결정이 우세함을

나타낸 결과라고 생각한다[46].

따라서,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자기주도적 행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과 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기조절학습의 성취는 미래 간호사의 역량이며, 이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요인을 확인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평생학습자로서 성취해야 할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외적 변인으로서의 교수자의 자율성지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취목표지향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결정동기와 대인관계유능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수자의 자율성지지는 자기결정동기와 성취목표지향의 영향을 받지만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학습활동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의 발달과정에서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는 첫 단계가 자기조절학습 태도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필요한 학생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새롭게 변화되는 교육환경에서 학습자의 배움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방법의 개발과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개 간호대학의 3학년과 4학년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학습자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대학 1학년과 2학년 대학생을 포함한 비교·반복연구와 타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외적 요인인 교수자의 자율성지지만 아니라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모형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서 학업성취 변인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B. J. Zimmerman & D. H. Schunk. (2001).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etical perspectives*.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Google Scholar
- [2] M. S. Knowle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York : Association Press.
- [3] S. H. Park & E. H. Seo. (2008). Self-regulated learning of adolescents. its current statu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4(1), 135-52.
- [4] A. J. Bandur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self-regul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248-287. DOI : 10.1016/0749-5978(91)90022-L
- [5] L. Corno & M. J. Rohrkemper. (1985). The intrinsic motivation to learn in classroom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2, 53-90.
- [6] B. J. Zimmerman. (1990).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n overview. *Journal Educational Psychologis*, 25(1), 3-17. DOI : 10.1207/s15326985ep2501_2
- [7] B. J. Zimmerman. (2000). *Attaining self-regul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Handbook of Self-Regulation*. Massachusetts : Elsevier.
- [8] A. E. Black & E. L. Deci. (2000). The effects of instructors' autonomy support and students' autonomous motivation on learning organic chemistry :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Science Education*, 84(6), 740-756.
- [9] Y. H. So. (20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erception of learner centered instruction scale.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1), 113-135.
- [10] M. Vansteenkiste et al. (2012). Identifying configurations of perceived teacher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 Associations with self-regulated learning. *motivation and problem behavior, Learning and Instruction*, 22(6), 431-439.
- [11] A. Assor, H. Kaplan & G. J. Roth. (2002). Choice is good, but relevance is excellent : Autonomy-enhancing and suppressing teacher behaviours predicting students' engagement in schoolwork.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2(2), 261-278. DOI : 10.1348/000709902158883
- [12] Y. B. Heo & A. Y. Kim.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teacher's autonomy support and self-directed learn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6(4), 1075-1096.
- [13] E. H. Park. (2019).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attitude, teachers' autonomy support, and

-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CBNU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0(1), 1-16.
- [14] E. K. Shin. (2015).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ocial factor, psychological mediators and motivational factor for enhancing learners' perceived learning outcomes in middle school with english digital textbooks*. Master degree. Ewha women University, Seoul.
- [15] E. L. Thorndike. (1920). Intelligence examinations for college entranc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5), 329-337.
DOI : 10.1080/00220671.1920.10879060
- [16] H. J. Choi & J. S. Kim. (2015). Influence of gratitude disposi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eacher efficacy.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5(3), 247-67.
- [17] W. Graziano & L. J. Jensen-Campbell. (2005). Methodologies for studying personality processes in interpersonal conflict. *International Negotiation*, 10(1), 165-182.
- [18] J. S. Dias, L. P. Rocha, D. P. Carvalho, J. G. Tomaschewski-Barlem, E. L. Barlem & G. L. Dalmolin. (2019).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tool to assess nursing interpersonal relation. *Revista Brasileira de Enfermagem*, 72(2), 408-413.
DOI : 10.1590/0034-7167-2018-0229
- [19] P. Guan, A. Capezio, S. L. Restubog, S. Read, J. A. Lajom & M. Li. (2016). The role of traditionality in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4, 114-123.
DOI : 10.1016/j.jvb.2016.02.018
- [20] E. L. Deci & R. M. Ryan.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New York : The University of Rochester.
- [21] P. R. Pintrich. (2000). Multiple goals, multiple pathways: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in learning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 544-555.
- [22] S. Won, C. A. Wolters & S. A. Mueller. (2018). Sense of belonging and self-regulated learning: Testing achievement goals as mediators.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86(3), 402-418.
- [23] C. J. Ames. (1992). Classrooms :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3), 261.
- [24] M. R. Lepper & J. Henderlong. (2000). *Turning "play" into "work" and "work" into "play": 25 years of research on intrinsic versus extrinsic motivation, In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Massachusetts : Elsevier.
- [25] J. P. Woo. (2012).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Seoul: Hannarae.
- [26] J. Jaccard, C. K. Wan & J. Jaccard. (1996). *LISREL approaches to interaction effects in multiple regression*. New York : Sage University Paper.
- [27]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 H. T. Reis.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28] R. Brydges & D. Butler. (2012). A reflective analysis of medical education research on self-regulation in learning and practice. *Medical Education*, 46(1), 71-79.
DOI : 10.1111/j.1365-2923.2011.04100.x
- [29] B. J. Zimmerman & D. H. Schunk. (2011).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 [Self-regulated learning and performance : An introduction and an overview]. taylorfrancis. com.
- [30] R. M. Ryan & E. L. Deci. (2006). Self-regulation and the problem of human autonomy : Does psychology need choice, self-determination, and will?. *Journal of Personality*, 74(6), 1557-1586.
- [31] Y. M. Cha & W. Y. Eom. (2015). Effects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of Junior college students on learning flow.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9(1), 83-105.
- [32] J. H. Kim. (2014). Multiple mediated effect of self-determinative motivation to learn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 between successful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1(2), 43-61.
- [33] G. L. Lavigne, R. J. Vallerand & P. Miquelon. (2007). A motivational model of persistence in science education :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2, 351.
- [34] R. Pekrun. (2006). The control-value theory of achievement emotions : Assumptions, corollaries, and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8(4), 315-341.
- [35] A. Kaplan, E. Lichtinger & M. Gorodetsky. (2009).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d self-regulation in writing : An integ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1), 51-69.
- [36] A. L. Pincus & E. B. Ansell. (2003). *Interpersonal theory of personality*. Handbook of Psychology. Wiley Online Library : John Wiley & Sons.
DOI : 10.1002/0471264385
- [37] T. H. Kim & J. H. Lee. (2019). The effects of emotional awarenes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s mediat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40(2), 13-24.
- [38] T. W. Farmer, M. J. Irvin, A. N. Sgammato, K. Dadisman & J. H. Thompson. (2009). Interpersonal competence configurations in rural appalachian fifth graders: academic achievement and associated adjustment factors. *Elementary School Journal*, 109(3), 301-321.

DOI : 10.1086/592309

- [39] M. L. Bernacki, J. P. Byrnes & J. G. Cromley. (2012).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s and self-regulated learning behaviors on reading comprehension in technology-enhanced learning environment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7(2), 148-161.
DOI : 10.1016/j.cedpsych.2011.12.001
- [40] A. Artino et al. (2012). Achievement goal structures and self-regulated learning. *Academic Medicine*, 87(10), 1375-1381.
DOI : 10.1097/ACM.0b013e3182676b55
- [41] A. Hardwin & M. Oshige. (2011). Self-regulation, coregulation, and socially shared regulation : Exploring perspectives of social in self-regulated learning theory. *Teachers College Record*, 113(2), 240-264.
- [42] J. Schuitema, T. Peetsma & I. Veen. (2016).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perceived autonomy and social support from teachers and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hievement.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 32-45.
DOI : 10.1016/j.lindif.2016.05.006
- [43] Y. M. Cha & W. Y. Eom. (2018). Structural relations among autonomy support,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flow as perceived by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14(10), 27-51.
- [44] S. S. Shin. (2008). The relation of self-determination and achievement goals to Taiwanese eighth graders' behavioral and emotional engagement in schoolwork.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8(4), 313-334.
- [45] J. Reeve. (2006). Teachers as facilitators: What autonomy-supportive teachers do and why their students benefi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6(3), 225-236.
- [46] Y. C. Yang. (2015). Conditions of instruction for developing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11(3), 55-79.

조 혜 경(HaeKyung Cho)

[중신학원]



- 2016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호스피스
- E-Mail : hkcho43@hanmail.net

송 미 순(MiSoon Song)

[장학원]



- 2018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9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 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학, 보건교육
- E-Mail : trsong@hanmail.net